

초등학생의 체형지각에 따른 비만도와 체형만족도 및 체형존중감에 관한 연구

백 경 신*

I. 서 론

우리나라는 식생활의 서구화로 인해 비만 발생이 성인은 물론 소아 및 청소년층에까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중요한 건강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소아 비만은 성인 비만증으로 이환 될 확률이 높고 당뇨병, 고혈압, 심혈관계 질환, 지방간, 고지혈증 등의 합병증을 동반할 수 있으므로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Lauter, Clarke, Mahoney & Witt, 1993; Park, 1997).

일반적으로 비만은 아동, 성인 모두에게 있어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현대 사회가 마른 체형을 이상형으로 선호하며 대중매체를 통한 비정상적으로 마른 체형을 사람들이 동일시하여 자신이 정상체중인데도 불구하고 비만하다고 생각하는 등 체형지각과 실제 체형간에 많은 불일치를 나타낸다(Joi & Kim, 1997). 또한 자신의 모습에 대해 불만을 느끼는 사람은 정상체중임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하며 위험한 식이요법을 시행하거나 폭식이나 절식, 구토 등의 비정상적인 식이행동을 나타내는 가능성이 있다(McCarthy, 1989; Mores, Banilivy & Lifshitz, 1989). Michael, Debra, Thomas 와 Patricia(1992)는 70%의 여자 청소년들이 자신의 신체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고 체중 감량을 원하는 62%가 정상체중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했으며, 체중에 대해 압박감을 가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춘기 이전의 어린 연령층에서도 체중을 인식하고 이를 조절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있음을 보고하였고, Rodin(1993)의 연구

에서는 마른 체형을 선호함에 따라 남성의 40%, 여성의 50% 이상이 체중 때문에 불행하다고 보고하였다.

자신의 외모에 대한 지각은 정서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Park 등(1997)과 Kim(1998)의 연구에서는 체형지각에 따라 체형만족도와 체형존중감이 유의한 관계가 있었음을 보고하였고 자신을 뚱뚱하다고 지각한 학생이 체형만족도와 체형존중감이 가장 낮았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선행 연구들은 자신의 신체에 특히 관심이 많은 사춘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체형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는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학동기는 제2의 급속한 성장과 성적 성숙을 준비하는 단계로서 자신의 신체에 대한 인식도 넓어지고 또래들과 자신을 비교함으로써 신체상이 발달되어 가며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자신의 모습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갖는다(Blaesing & Brockhaus, 1972). 그러므로 이 시기의 비만은 자아개념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체형으로 인한 열등감, 대인관계 장애, 또래 집단으로부터의 소외감 및 불만족을 경험하게 된다(Kim, 1993). 그러므로 학동기는 신체 발육과 앞으로의 인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시기라는 점을 고려 할 때 학생들이 표준체중의 개념과 비현실적인 체중과의 차이를 알고 자신의 체형을 바르게 평가하며 올바른 신체상을 인지할 수 있도록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주관적인 체형지각에 따른 비만도간의 일치정도와 체형만

* 세명대학교 간호학과

족도 및 체형존중감 정도를 알아보려고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의 체형지각 정도를 알아본다.
- 2)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의 체형지각에 따른 비만도와 체형만족도 및 체형존중감을 알아본다.
- 3) 일반적 특성별 체형지각 정도를 알아본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제천시의 5개 초등학교를 임의 선정하여 6학년 학생 중 신체적 결함과 정신적으로 학습에 장애가 없는 건강한 아동 669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여 자료수집을 하였고 신체 계측은 양호교사가 정기 신체검사에서 측정된 자료를 이용하였다.

2. 연구 도구

1) 체형 지각

자신의 체형에 대한 주관적인 지각으로 '똥똥하다', '보통이다', '말랐다' 중 하나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2) 비만도

Broca 지수 변법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구하였다.

$$\text{Broca's index} = \frac{\text{현재 체중(kg)}}{\text{표준체중(kg)}} \times 100$$

$$\text{표준체중} = (\text{신장(cm)} - 100) \times 0.9$$

: 신장이 150cm 이상인 경우

(신장(cm) - 100)

: 신장이 150cm 미만인 경우

Broca 지수가 120이상일 경우 비만군, 111-119는 과체중군, 90-110은 정상군, 89이하는 저체중군으로 분류하였다.

3) 체형만족도

Kim(1998)이 사용한 도구를 이용하였는데 이것은 9개의 그림 중에서 '어느 것이 당신의 현재 체형과 비슷합

니까?' 와 '당신이 원하는 체형은 어느 것입니까?'의 질문에 대해 각각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여 원하는 체형과 현재의 체형이 차이가 없으면 만족하는 것으로, 차이가 '-'이면 낯선해지기를 소망하는 것으로, 차이가 '+'이면 똥똥해지기를 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4) 체형존중감

Mendelson 과 White(1982)가 개발한 도구를 Park 등(1997)이 번역한 것을 사용하였으며 문항은 외모, 몸매, 체중 등에 대한 긍정 정도를 묻는 것으로서 긍정적인 문항은 '예'에 1점, 부정적인 문항은 '아니오'에 1점을 주어 총 2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체형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도구의 신뢰도는 KR-20 = .8415 이었다.

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일반적 특성과 체형지각은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고 체형지각에 따른 비만도와 체형만족도, 일반적 특성별 체형지각은 카이제곱 검증(Chi-square test), 체형지각에 따른 체형존중감은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일반적 특성

대상자는 총 669명으로 남학생 336명(50.2%), 여학생 333명(49.8%)이었고, 형제 순위는 첫째 348명(52.0%), 둘째 252명(37.7%), 셋째이상 69명(10.3%)으로 남녀 모두 첫째가 많았다. 부모의 학력은 남, 여 모두 고졸이 많았고 부모의 체형은 남, 여 모두 보통인 경우가 많았으며 학업성적은 중 356명(53.2%), 상 182명(27.2%), 하 131명(19.6%) 순으로 남, 여 모두 중이 많았다(표 1).

2. 체형지각

체형지각은 남학생에서 보통으로 지각한 경우가 217명(64.6%), 말랐다고 지각한 경우가 77명(22.9%), 똥똥하다고 지각한 경우가 42명(12.5%)이었고, 여학생에서는 보통으로 인식한 경우가 236명(70.9%), 말랐다고 인식한 경우가 60명(18.0%), 똥똥하다고 지각한 경우

가 37명(11.1%)으로 나타났다(표 2).

<Table 2> Weight Perception

	Male	Female	Total
	N (%)	N (%)	N (%)
Thinness	77(22.9)	60(18.0)	137(20.4)
Normal	217(64.6)	236(70.9)	453(67.8)
Obesity	42(12.5)	37(11.1)	79(11.8)

3. 체형지각에 따른 비만도

체형지각에 따른 비만도는 남(F=137.49, p=.000), 여학생(F=167.72, p=.000)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평균 비만도는 남학생에서는 자신의 체형이 뚱뚱하다고 지각한 경우 114.52(표준편차 15.06), 보통이라고 인식한 경우 89.45(표준편차 10.92), 말랐다고 인식한 경우 79.82(표준편차 8.23) 이었고, 여학생에서는 자신의 체형을 뚱뚱하다고 인식한

경우 107.57(표준편차 12.89), 보통이라고 인식한 경우 85.51(표준편차 8.93), 말랐다고 인식한 경우 73.26(표준편차 5.53)으로 나타났다.

체형지각에 따른 비만도 분포를 실제 비만도와 비교해 보면 남학생에서 자신의 체형을 뚱뚱하다고 지각한 군에서 과체중 이상인 경우는 92.9% 이었고 보통이라고 지각한 군에서 표준체중인 경우는 59.0%, 과체중 이상인 경우는 32.7%로 나타났으며 말랐다고 지각한 군에서 저체중인 경우는 22.1%, 표준체중인 경우는 74.0%로 나타났다. 여학생에서 자신의 체형을 뚱뚱하다고 지각한 군에서 과체중 이상인 경우는 62.2%, 표준체중인 경우는 37.8% 이었고 보통이라고 지각한 군에서 표준체중인 경우는 54.2%, 저체중인 경우는 35.6%, 과체중 이상인 경우는 10.2%로 나타났으며 말랐다고 지각한 군에서 저체중인 경우는 76.7%, 표준체중인 경우는 23.3%로 나타났다(표3-1, 표3-2).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Class	Male	Female	Total
		N (%)	N (%)	N (%)
Birth order	First	171(50.9)	177(53.2)	348(52.0)
	Second	132(39.3)	120(36.0)	252(37.7)
	Above third	33(9.8)	36(10.8)	69(10.3)
Father's educational level	Elementary school	17(5.1)	9(2.7)	26(3.9)
	Middle school	40(11.9)	29(8.7)	69(10.3)
	High school	193(57.4)	217(65.2)	410(61.3)
	Above college	86(25.6)	78(23.4)	164(24.5)
Mother's educational level	Elementary school	24(7.1)	16(4.8)	40(6.0)
	Middle school	51(15.2)	54(16.2)	105(15.7)
	High school	220(65.5)	225(67.6)	445(66.5)
	Above college	41(12.2)	38(11.4)	79(11.8)
Father's body shape	Thinness	52(15.5)	60(18.0)	112(16.7)
	Normal	256(76.2)	233(70.0)	489(73.1)
	Obesity	28(8.3)	40(12.0)	68(10.2)
Mother's body shape	Thinness	34(10.1)	52(15.6)	86(12.9)
	Normal	259(77.1)	244(73.3)	503(75.1)
	Obesity	43(12.8)	37(11.1)	80(12.0)
Grade	Excellent	93(27.7)	89(26.7)	182(27.2)
	Moderate	171(50.9)	185(55.6)	356(53.2)
	Poor	72(21.4)	59(17.7)	131(19.6)
		336(100.0)	333(100.0)	669(100.0)

<Table 3-1> Difference in Obesity Index by Weight Perception

	Male	F	p	Female	F	p
	Mean (SD)			Mean (SD)		
Thinness	79.82 (8.23)			73.26 (5.53)		
Normal	89.45 (10.92)	137.49	.000	85.51 (8.93)	167.72	.000
Obesity	114.52 (15.06)			107.57 (12.89)		

<Table 3-2> Distribution in Obesity Index by Weight Perception

	Male			Female			Total		
	under-weight N(%)	normal-weight N(%)	over-weight N(%)	under-weight N(%)	normal-weight N(%)	over-weight N(%)	under-weight N(%)	normal-weight N(%)	over-weight N(%)
Thinness	17(22.1)	57(74.0)	3(3.9)	46(76.7)	14(23.3)	0(.0)	63(46.0)	71(51.8)	3(2.2)
Normal	18(8.3)	128(59.0)	71(32.7)	84(35.6)	128(54.2)	24(10.2)	102(22.5)	256(56.5)	95(21.0)
Obesity	0(.0)	3(7.1)	39(92.9)	0(.0)	14(37.8)	23(62.2)	0(.0)	17(21.5)	62(78.5)
χ^2	102.20			118.98			188.63		
p	.000			.000			.000		

4. 체형지각에 따른 체형만족도

체형지각에 따른 체형만족도는 남($\chi^2=140.47$, $p=.000$), 여학생($\chi^2=130.99$, $p=.000$)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남학생에서 자신의 체형에 만족하는 경우는 자신의 체형을 말랐다고 지각하는 군이 20.8%, 보통이라고 지각한 군이 39.2%, 뚱뚱하다고 지각하는 군이 7.1% 이었고, 여학생에서는 자신의 체형에 만족하는 경우는 자신의 체형을 말랐다고 지각하는 군이 38.3%, 보통이라고 지각한 군이 30.9%, 뚱뚱하다고 지각하는 군은 자신의 체형에 만족하는 경우가 없었다(표 4).

5. 체형지각에 따른 체형존중감

체형지각에 따른 체형존중감은 남($F=17.67$, $p=$

.000), 여학생($F=13.95$, $p=.000$)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평균 체형존중감은 남학생에서 자신의 체형을 보통이라고 지각한 군이 13.70점(표준편차 4.77), 여학생에서는 자신의 체형을 말랐다고 지각한 군이 13.01점(표준편차 4.45)으로 가장 높았으며 남, 여 모두 자신의 체형을 뚱뚱하다고 지각한 군에서 평균 체형존중감이 가장 낮았다(표 5).

6. 일반적 특성에 따른 체형지각

일반적 특성에 따른 체형지각은 남학생에서는 부의 체형($\chi^2=13.72$, $p=.008$), 여학생에서는 부의 학력($\chi^2=14.90$, $p=.021$), 모의 학력($\chi^2=17.73$, $p=.007$), 모의 체형($\chi^2=13.07$, $p=.01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남학생에서는 부의 체형에서 마른 경우 17.3%, 보통인 경우 9.8%, 비만인 경우 28.6%가 자

<Table 4> Difference in Body Shape Satisfaction by Weight Perception

	Male			Female			Total		
	want to be thin N(%)	satisfaction N(%)	want to be obese N(%)	want to be thin N(%)	satisfaction N(%)	want to be obese N(%)	want to be thin N(%)	satisfaction N(%)	want to be obese N(%)
Thinness	5(6.5)	16(20.8)	56(72.7)	1(1.7)	23(38.3)	36(60.0)	6(4.4)	39(28.5)	92(67.2)
Normal	94(43.3)	85(39.2)	38(17.5)	138(58.5)	73(30.9)	25(10.6)	232(51.2)	158(34.9)	63(13.9)
Obesity	39(92.9)	3(7.1)	0(.0)	37(100.0)	0(.0)	0(.0)	76(96.2)	3(3.8)	0(.0)
χ^2	140.47			130.99			266.80		
p	.000			.000			.000		

<Table 5> Difference in Body Shape Esteem by Weight Perception

	Male	Female	Total
	Mean (SD)	Mean (SD)	Mean (SD)
Thinness	12.80 (4.69)	13.01 (4.45)	12.89 (4.57)
Normal	13.70 (4.77)	11.92 (5.42)	12.77 (5.19)
Obesity	9.07 (3.63)	7.59 (4.23)	8.37 (3.97)
F	17.67	13.95	27.97
P	.000	.000	.000

신의 체형을 뚱뚱하다고 지각하였으며, 여학생에서는 부의 학력에서 초등졸인 경우 33.3%, 중졸인 경우 17.3%, 고졸인 경우 8.3%, 대졸이상인 경우 14.1%가, 모의 학력에서 초등졸인 경우 6.2%, 중졸인 경우 22.2%, 고졸인 경우 8.5%, 대졸이상인 경우 13.2%가, 모의 체형에서 마른 경우 5.8%, 보통인 경우 9.8%, 비만인 경우 27.0%가 자신의 체형을 뚱뚱하다고 지각하였다(표 6).

IV. 논 의

본 연구에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의 주관적인 체형지각은 남학생의 12.5%, 여학생의 11.1%가 자신의 체형

을 뚱뚱하다고 생각하여 남, 여학생 모두 비슷한 비율을 나타내었다. 이는 자신의 체형 인식에 관한 연구에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Kim(1998)의 보고에 따르면 남학생의 19.6%, 여학생의 22.1%가 자신을 뚱뚱하다고 평가한 것과 비교하면 낮았다. 또한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Lee(1996)의 연구에서는 남학생의 26.6%, 여학생의 45.0%가 자신을 비만하다고 생각하였고, 여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Choi(1990)의 연구에서는 여학생의 80.4%가 자신을 뚱뚱하게 생각하고 있었으며 Sciacca, Melby, Hyner, Brown과 Femea(1991)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남학생의 19.7%, 여학생의 16.7%가 자신을 비만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보고하여 비만하다고 인식하는 정도가 초등학교와 대학교

<Table 6> Difference in Weight Perception by General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Male			x ²	p	Female			x ²	p
	Thinness N(%)	Normal N(%)	Obeseness N(%)			Thinness N(%)	Normal N(%)	Obeseness N(%)		
Birth Order										
First	41(23.9)	107(62.6)	23(13.5)	5.92	.205	33(18.6)	124(70.1)	20(11.3)	1.51	.823
Second	24(18.2)	93(70.4)	15(11.4)			20(16.7)	85(70.8)	15(12.5)		
Above third	12(36.4)	17(51.5)	4(12.1)			7(19.5)	27(75.0)	2(5.5)		
Father's Educational Level										
Elementary school	5(29.4)	12(70.6)	0(.0)	9.38	.153	2(22.2)	4(44.5)	3(33.3)	14.90	.021*
Middle school	6(15.0)	24(60.0)	10(25.0)			1(3.4)	23(79.3)	5(17.3)		
High school	44(22.8)	126(65.3)	23(11.9)			38(17.5)	161(74.2)	18(8.3)		
Above college	22(25.6)	55(63.9)	9(10.5)			19(24.4)	48(61.5)	11(14.1)		
Mother's Educational Level										
Elementary school	5(20.9)	17(70.8)	2(8.3)	2.52	.866	2(12.5)	13(81.3)	1(6.2)	17.73	.007**
Middle school	9(17.6)	34(66.7)	8(15.7)			6(11.1)	36(66.7)	12(22.2)		
High school	55(25.0)	139(63.2)	26(11.8)			39(17.3)	167(74.2)	19(8.5)		
Above college	8(19.5)	27(65.9)	6(14.6)			13(34.2)	20(52.6)	5(13.2)		
Father's Body Shape										
Thinness	11(21.2)	32(61.5)	9(17.3)	13.72	.008**	13(21.7)	41(68.3)	6(10.0)	7.38	.117
Normal	65(25.4)	166(64.8)	25(9.8)			43(18.5)	168(72.1)	22(9.4)		
Obesity	1(3.6)	19(67.8)	8(28.6)			4(10.0)	27(67.5)	9(22.5)		
Mother's Body Shape										
Thinness	12(35.3)	20(58.8)	2(5.9)	7.50	.112	13(25.0)	36(69.2)	3(5.8)	13.07	.011*
Normal	60(23.1)	167(64.5)	32(12.4)			41(16.8)	179(73.4)	24(9.8)		
Obesity	5(11.6)	30(69.8)	8(18.6)			6(16.2)	21(56.8)	10(27.0)		
Grade										
Excellent	23(24.7)	59(63.5)	11(11.8)	.566	.967	18(20.2)	62(69.7)	9(10.1)	1.84	.764
Moderate	37(21.6)	111(64.9)	23(13.5)			31(16.8)	135(73.0)	19(10.2)		
Poor	17(23.6)	47(65.3)	8(11.1)			11(18.6)	39(66.1)	9(15.3)		

* p < .05

** p < .01

*** p < .001

에서는 남학생과 여학생간에 비슷한 비율을 보이지만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더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체형지각에 따른 비만도 일치 정도는 남학생에서 말랐다고 인식한 경우의 22.1%가 저체중, 보통이라고 인식한 경우의 59.0%가 표준체중, 뚱뚱하다고 인식한 경우의 92.9%가 과체중 이상에 해당하였고, 여학생에서는 말랐다고 인식한 경우의 76.7%가 저체중, 보통이라고 인식한 경우의 54.2%가 표준체중, 뚱뚱하다고 인식한 경우의 62.2%가 과체중 이상에 해당되어 남학생은 실제 체중이 과체중 이상이면서도, 여학생은 실제 체중이 저체중 이면서도 자신의 체형을 보통으로 인식하여 체형지각과 실제 비만도간에 일치정도가 낮았다. 이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Kim(1998)의 연구에서 남, 여학생 각각 자신의 체형을 말랐다고 인식한 경우가 14.8%, 12.5% 이었으나 실제 비만도에서 저체중에 해당하는 남, 여학생은 각각 52.7%, 59.7%로 나타나 남, 여학생 모두 자신의 체형을 과대 평가하여 본 연구결과와 일부분 일치하였고, Sciacca 등(1991)의 체형 지각과 체질량 지수를 이용한 비만도간의 일치 정도에서 남학생은 실제 체중보다 말랐다고 인식하고 여학생은 반대로 실제 체중에 비해 더 뚱뚱하다고 인식한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 결과와 부합하였으나 한편 Miller, Coffman과 Linke(1980)의 연구에서는 대부분의 남학생은 체질량 지수로 분류한 체중군과 비슷하게 자신의 체형을 지각하지만 대부분의 여학생은 기준보다 높게 체형을 지각하였다고 보고하였고 Lee(1996)와 Chaung(2001)의 연구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체형지각과 비만도 간에 불일치 정도가 심하고 자신의 체형을 과대 평가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체형지각에 따른 체형만족도 분포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남학생에서는 자신의 체형을 보통이라고 지각한 경우 39.2%, 여학생에서는 말랐다고 지각한 경우 38.3%로 체형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남, 여학생 모두 뚱뚱하다고 지각한 경우 체형만족도가 가장 낮았으며 자신의 체형을 보통이라고 평가한 경우 남학생의 43.3%, 여학생의 58.5%가 현재보다 더 날씬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Kim(1998)은 자신의 체형에 만족하는 비율은 남학생은 자신의 체형을 보통이라고 인식한 경우, 여학생은 말랐다고 인식한 경우에 가장 높았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고 자신의 외모에 대한 지각은

정서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며 자신이 인식하는 비만 수준이 높을수록 신체만족도가 낮아진다(Kang 등, 1994). 또한 본 연구에서 남학생의 30.9%, 여학생의 28.8%가 현재 자신의 체형에 만족하였으며 남학생의 41.0%, 여학생의 52.8%가 현재보다 더 날씬해지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Maloney, McGuire, Daniels 와 Specker (1989)는 남학생의 35.0%, 여학생의 55.0%가 보다 날씬해지길 원하며 Park 등(1997)도 남학생의 22.0%, 여학생의 22%가 현재 체형에 대해 만족하고 남학생의 37%, 여학생의 63%가 더 날씬해지길 원한다는 보고와 비슷하였는데 마른 체형을 선호함에 따라 신체의 만족도가 점차 감소하여 체중 때문에 불행해 하며 실제 체형과 상관없이 이상으로 생각하는 체형과 비교하여 고민하고 부정적인 신체상을 갖게 된다(Rodin, 1993: Sedular 등, 1993). 한편 남, 여학생의 체형만족도 비율에 있어 Joi(1992)는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신체에 대한 만족도가 낮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와 달랐는데 이것은 초등하고 6학년 학생이 아직 청소년기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남, 여학생간에 체형에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체형지각에 따른 체형존중감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남학생에서는 보통이라고 인식한 경우 13.70점, 여학생에서는 말랐다고 인식한 경우 13.01점으로 체형존중감이 가장 높았고 남, 여학생 모두 뚱뚱하다고 지각한 경우에 체형존중감이 가장 낮았다. 이는 Kim(1998)의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남학생은 자신의 체형을 보통이라고 인식한 경우, 여학생은 자신의 체형을 말랐다고 인식한 경우에 체형존중감이 가장 높았고 남, 여학생 모두 자신의 체형을 비만하다고 인식한 경우 체형존중감이 가장 낮았다는 결과와 일치하였다. 따라서 비만은 남, 여학생 모두가 부정적인 상태로 생각하고 비만하다고 인식할수록 체형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낮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초등학생의 주관적인 체형지각은 체형만족도 및 체형존중감과 관련이 있었고 체형지각과 실제 비만도와의 관계에서 남학생은 실제체중보다 낮게 여학생은 실제체중보다 더 비만하게 지각하고 있었고 체형만족도와 체형존중감은 남학생은 자신의 체형을 보통이라고 인식한 경우 가장 높는데 반해 여학생은 자신의 체형을 말랐다고 인식한 경우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학생들이 표준체중의 개념과 비현실적인 체중과의 차이를 알고 자신의 체형을 바르게 평가하며 올바른 신체상을 인지할

수 있도록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체형지각에 따른 비만도와 체형만족도 및 체형존중감을 알아보기 위하여 제천시 5개 초등학교 6학년 학생 669명을 대상으로 신체계측 자료와 설문지 조사를 이용하여 자료수집을 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체형지각은 남학생의 12.5%, 여학생의 11.1%가 자신의 체형을 뚱뚱하다고 지각하였고 체형지각에 따른 비만도는 남($x^2=102.20$, $p=.000$), 여학생($x^2=118.98$, $p=.000$)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남학생에서는 말랐다고 지각한 학생의 74.0%, 보통이라고 지각한 학생의 59.0%, 뚱뚱하다고 지각한 학생의 7.1%가 표준체중으로 나타났으며 여학생에서는 말랐다고 지각한 학생의 23.3%, 보통이라고 지각한 학생의 54.2%, 뚱뚱하다고 지각한 학생의 37.8%가 표준체중으로 나타났다.

2. 체형지각에 따른 체형만족도는 남($x^2=140.47$, $p=.000$), 여학생($x^2=130.99$, $p=.000$)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남학생에서는 말랐다고 지각한 학생의 20.8%, 보통이라고 지각한 학생의 39.2%, 뚱뚱하다고 지각한 학생의 7.1%가 체형에 대해 만족하였으며 여학생에서는 말랐다고 지각한 학생의 38.3%, 보통이라고 지각한 학생의 30.9%가 체형에 대해 만족하였고 뚱뚱하다고 지각한 학생 중에서 체형에 만족하는 경우는 없었다.

3. 체형지각에 따른 체형존중감은 남($F=17.67$, $p=.000$), 여학생($F=13.95$, $p=.000$)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평균 체형존중감 점수는 남학생에서는 자신의 체형을 보통이라고 지각한 학생이 13.70점(표준편차 4.77), 여자에서는 자신의 체형을 말랐다고 지각한 학생이 13.01점(표준편차 4.45)으로 체형존중감이 가장 높았고 남(평균 9.07점, 표준편차 3.63), 여학생(평균 7.59점, 표준편차 4.23) 모두 자신의 체형을 뚱뚱하다고 지각한 학생이 체형존중감이 가장 낮았다.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체형지각은 남학생에서는 부의 체형($x^2=13.72$, $p=.008$)에서, 여학생에서는 부의 학력($x^2=14.90$, $p=.021$), 모의 학력($x^2=17.73$, $p=.007$), 모의 체형($x^2=13.07$, $p=.01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초등학교 학생의 체형지각에서 남, 여학생 모두 실제 비만도와 차이가 있었고 비만하다고 인식하는 경우 체형만족도와 체형존중감이 낮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비

만학생의 관리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자신의 체형을 바르게 평가하여 올바른 신체상을 인지할 수 있도록 보건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Reference

- Blaesing, S., & Brockhaus, J. (1972). The development of body image in the child. *MCNA*, 7(4), 602.
- Chang, S., K. (2001). weight control practices and body image of female college student. *J. Korean Society for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18(3), 163-175.
- Kang, J., W., Park, C., W., Park, H., W., Chung, H., S., & Park, Y., R. (1994). Relation between depressive trends and body weight in teen-age girls. *J. Korean Acad. Fam. Med*, 15(9), 639-647.
- Kim S., N. (1998). *The impact of obesity on body shape satisfaction and body shape esteem in the elementary school student*.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 Kim, A., R. (1993). *A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health locus of control and depression of obese and normal weight students*. The Graduate School of Yonsei University, Seoul.
- Lauter, R. M, Clarke, W. R, Mahoney, L. T., & Witt, J. (1993). Childhood predictors for high adult blood pressure : the Muscatine study. *Ped. Clin. North America* 40(1), 23-39.
- Lee, S., H. (1996). *The state of obesity and interest and method on the weight control for middle school student*.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 Maloney, M., J., McGuire, J., Daniels, S., R., & Specker, B. (1989). Dieting behavior and eating attitudes in children. *Pediatrics* 84(3), 482-489.

- McCarthy, M. (1989). The thin ideal, depression and eating disorders in women. *Behav. Res. Ther.* 28(3), 205-215.
- Mendelson, B., K., & White, D., R. (1982). Relation between body-esteem and self-esteem of obese and normal children. *Percept Mot. Skills* 54, 899-905.
- Michael, F., Debra, T., Thomas, C. & Patricia, D. (1992). Adolescent's perceptions of relative weight & self reported weight loss activities. *J. School Health* 62(8), 372-376.
- Miller, T., M., Coffman, J., G. & Linke, R., A. (1980). Survey on body image, weight and diet of college students. *J. The American Dietetic Association* 77, 561-566.
- Moses, N., M., Banilivy, M. & Lifshitz, F. (1989). Fear of obesity among adolescent girls. *Pediatrics* 83(3), 393-398.
- Park, J. N., Yang, Y. S., Han, J., G. Kim, S., W., Hwang, H., S. & Huh, B., R. (1997). Weight in children's minds : body shape dissatisfactions for 12-year old children. *J. Korean Acad. Fam. Med.* 18(6), 622-631.
- Rodin, J. (1993). Cultural and psychosocial determinents of weight concerns. *Annals of Int. Med.* 119(7 pt 2), 643-645.
- Sciaccia, J., P., Melby, C., L., Hyner, G. C., Brown, A. C. & Femea, P. L. (1991). Body mass index and perceived weight status in young adults. *J. Community Health* 16(3), 159-168.
- Sedular, M., K., Collins, M., E., Williams, D. F. Anda, R., F., Pamuk, E. & Byer, T., E. (1993). Weight control practices of US adolescents and adults. *Annals of Int. Med.* 19(7 pt 2), 667-671.
- Joi, G., S. (1992).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body image, bodily attraction, distortion of body image in adolescent. The Graduate School of Boosan National University, Bosan.
- Joi, S., J. & Kim, C., K. (1997). The effect of obesity level and weight control type on stress in female college students. *J. Korean Society for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14(2), 1-15.
- Choi, W., G. (1990). Personality according to body shape in female high school students.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 Abstract-

A Study on Obesity Index, Body Shape Satisfaction and Body Shape Esteem according to Weight Perception in Elementary Students

*Paek, Kyung Shin**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obesity index, body shape satisfaction and body shape esteem according to weight perception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Method : The data were collected by using a questionnaire and physical examination records. The subjects were comprised of 669 children, all 12-years old, obtained from five (5) different elementary schools located in Jecheon. Data were analyzed with frequency, percentages, Chi-square test, ANOVA using the SPSS program.

Results :

12.5% of male students, 11.1% of female students perceived themselves obese.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obesity index according to weight perception in male students ($\chi^2=140.47$, $p=.000$), in female students ($\chi^2=130.99$,

*Department of Nursing, Semyung University

$p = .000$). The percentages corresponding to normal body weight were highest with students who thought themselves thin in male students and self-perceived normal in female students. But in female students, 23.3% of self-perceived thin students, 37.8% of students who thought themselves obese corresponded to normal body weight actually.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body shape satisfaction according to weight perception in male students ($\chi^2 = 140.47$, $p = .000$), and in female students ($\chi^2 = 130.99$, $p = .000$). The percentages of body shape satisfaction were highest with students who thought themselves normal in male students while and in female students, the students who thought themselves thin were highes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body shape esteem according to weight perception for male students ($F = 17.67$, $p = .000$), and in female students ($F = 13.95$, $p = .000$). The mean scores of body shape esteem were highest with students who thought themselves normal in male students and thin in female students. The students who thought themselves obese were lowes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weight perception according to father's body shape ($\chi^2 = 13.72$, $p = .008$) in male students and father's educational level ($\chi^2 = 14.90$, $p = .021$), mother's educational level ($\chi^2 = 17.73$, $p = .007$), mother's body shape ($\chi^2 = 13.07$, $p = .011$) in female students.

Key words : Weight perception, Obesity index, Body shape satisfaction, Body shape esteem